

동북아 해역인문학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인식조사 연구* - '해양문화지수' 를 중심으로 -

양민호**·최민경***

〈목 차〉

I. 들어가며
II. 본론
2.1 해양문화지수
2.2 결과 및 분석

III.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본 연구는 기존의 역사학적 관점과 인류학적 관점의 접근 방식이 아니다. '해양문화지수'라는 프레임 가지고 사회언어학적 방법으로 해역 연구에 활용하는 시도를 하였다. 올해는 '해양문화지수'의 3번째 조사이다.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에서는 연구 주제에 맞추어 부경해양지수(PKNU Maritime Index) 항목을 보완하고 개발하였다. 그 결과 2019년 부경해양지수 점수는 585.3점이었다. 한국인의 바다에 관한 인식인 부경해양지수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았다. '친숙지수'가 64.1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지수'가 46.1점으로 제일 낮았다. 한편 2019년 조사에 처음으로 포함시킨 '동북아해역지수'는 51.1점으로 평균에 살짝 미치지 못하였다. 이 '동북아해역지수'를 사회언어학적 속성에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그리고 바다관련 종사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기존의 인문학 연구처럼 역사적 문헌 연구와 현장 조사를 통한 실태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4차 산업 시대가 도래한 지금, 이 조사는 국민들의 바다 인식, 우리는 바다를 통한 인문학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주제어 : 동북아해역, 인문학, 인식, 사회언어학, 설문조사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869).

** 제1저자: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 교신저자: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교수.

I. 들어가며

기존의 ‘해역’¹⁾에 관한 연구는 역사학적 관점에서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거나, 인류학 또는 민속학적 관점에서 현장조사(필드워크)를 바탕으로 기술적(記述的)으로 풀어내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해역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의 연구 범위는 매우 협소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속 세계문명의 중심에 있던 국가들의 대부분이 해양을 가까이 한 국가들이다. 다시 말해 해양은 오랫동안 인류에게 식량의 중요한 공급원이며 국가 간의 교역을 가능하게 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또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처럼 해양을 잘 이용한 국가는 언제나 강대국으로서 찬란한 문명을 이루어 왔다. 가까운 예로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부터 태평양 서쪽 일대의 해양을 장악하여 해양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바다 또는 해양과 관련된 것들을 설문 항목으로 모아 본 논문에서는 해양문화지수로 설명하고자 한다.

기존의 많은 선행 연구들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문헌 등으로 뒷받침되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해역 연구의 틀을 깨 보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연구의 일환으로써 ‘해양문화지수(Maritime Cultural Index)’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가지고 향후 해역 인문학 연구 전반에 걸쳐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 ‘지수’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는 ‘국가지속발전 가능지수’ ‘문화지수’ 또는 ‘생활지표’ 등과 같이 어떠한 현상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말하는 해양지수를 활용하여 ‘해역인문학’에 관한 우리나라 국민 인식에 대한 객관적 결과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사실 ‘지수’를 활용한 연구는 인문학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연구 수단은 아니다. 경제학이나 기타 국가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학, 그리고 해양수산 관련 분야에서 발전 전략에 중대한 관련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러한 지수를 만든다. 예를 들어 선박사고 ‘예방지수’와 같은 연구들이 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박사고 예

1) 해양을 비롯하여 육지와 맞닿아 있는 배후 공간을 모두 포함한 곳을 가리킨다.

방지수는 예방활동의 동기와 성과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시각적이고 정량적인 지수를 발견 개발하여 선순환적인 예방문화를 구축하고자 선박사고 예방지수와 예방수준을 개념화하고 정량화하였다. 객관적 데이터인 교육, 기술, 단속, 정보의 영역으로 구조화하여 예방요소와 인자를 추출함으로써 지수를 정의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준하여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해양문화지수’는 11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수를 정의할 수 있다. 정해진 지수 산정에 있어서 평가 모듈을 설계하였고, 설정된 모듈을 이용하여 해양문화지수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해양지수를 통계적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해양지수와 직업적 관련성, 성별, 연령별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문화지수로 해역인문학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전체 항목 중 일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사 연구가 새로이 전개될 동북아해역수도로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방법을 모색하고 해양인문학이 국가 정책 반영에 적극적으로 참고가 되어 인류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틀이 되고자 한다.

II. 본론

1. 해양문화지수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해양문화지수’란 ‘부경해양지수’를 의미한다. 이는 앞선 조사에서 이렇게 명명하였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도 같은 네이밍(Naming)을 따르기로 하였다. 사실 ‘해양문화지수’ 조사는 올해가 3번째 조사이다. 2017년, 2018년 부경대학교 대학인문역량강화(CORE)사업단에서 진행해왔던 ‘부경해양지수’ 조사를 2019년에 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에서 계승하여 지속적이고 발전 가능한 ‘해양문화지수’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해양문화지수’ 조사의 목적은 한국인에게 있어 바다의 의미를 해역인문학 관점에서 묻고 확인하여 해양인문, 해양교육, 해양문화, 산업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해역인문학의 토대 마련과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인의 해역 인식과

해역이 지니는 인문학적 의미를 지역과 세대, 개개인의 경험에 따른 해역 인식과 사고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새로이 2019년 조사에서는 해역인문학적 관점에서 ‘동북아 해역지수’를 추가하였고 이를 통하여 동북아 해역인문학에 관한 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해양문화를 기존의 포괄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연구가 아니다. 비록 완성형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해역인문학에 특화된 연구의 시발점이라고 자리매김할 수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해역인문학을 사회언어학적 관점에 다루었다. 바꾸어 말하자면 여기에는 인구통계학적 요인별로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이다.

1.1. 연구 설계 및 응답자 속성

‘해양문화지수’의 근본이 되는 조사인 2019년도 부경해양지수 조사는 다음 표[1] 표[2]와 같이 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이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대인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경우, 예년에 비해 200명을 늘려 전국 1,200명 규모로 조사하였다.

[표1] 표본 설계

구분	내용
목표 모집단	2019년 기준 만 19세~59세 국민
표본 틀	2019년 10월 기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등록인원
표본 크기	1,200명 (유효표본)
모집단 층화	시/도별, 성별, 연령별
표본 배분	제공근 비례배분
표본 오차	±3.71%p (95% 신뢰수준)

[표2] 조사 방법 및 조사기간

구분	내용
조사 방법	1:1 대면면접조사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 기간	10월 14일 ~ 10월 23일

무엇보다 중요한 면접조사 설문 개발은 2017년과 2018년 실시된 조사를 바탕으로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에서 조사 항목 가감을 통하여 최종 개발하였다. 2017년도 조사에서는 6개, 2018년 조사에서 10개의 해양지수 항목을 중심으로 살

펴보았다. 그러나 2019년에는 ‘동북아해역지수’를 추가하여 총 11개 지수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그밖에도 우리가 바다와 해역 관련하여 관심 있는 질문을 추가한 일반 항목으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 2017년 ‘한국인에게 바다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최초의 해양인문학의 종합적 조사 이후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된 항목들로 완성되어 있다.

[표3] 주요 조사 항목

구분	내용
지수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지수 : 바다에 대하여 긍정적 정서를 느끼는 정도 • 지식지수 : 바다에 대한 지식 수준 • 체험만족지수 : 해양 관련 활동 및 문화 체험 경험 여부, 빈도, 만족도 • 안전지수 : 해양안전 사고의 직/간접적 경험, 안전에 대한 상식 및 행동요령 숙지 여부 • 안보지수 : 해양 주권 및 영유권, 해상 안보의 확보 정도 • 먹거리지수 : 바다 먹거리의 섭취 빈도, 만족도, 선호도, 추천 의향 • 환경지수 : 해양 환경 만족도, 해양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행동 • 경제지수 : 바다가 개인/지역/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교육지수 : 다양한 교육기관에서의 해양교육 수준, 만족도, 정책의지 • 정책지수 : 해양 정책의 중요성, 실효성, 정책 수용도 • 동북아해역지수 : 동북아 해역 주변국 영향 정도
일반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년간 경험한 해양 관련 여가 및 문화 활동 만족도 • 현세대의 바다 관련 체험 및 문화 전망 • 바다 관련 한국 문화 중 다음세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바다가 영향을 미친 정도 • 바다 혹은 해양 관련 문화 콘텐츠 선호도 • 대형 해양 안전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 • 해양안전교육 분야 중 가장 필요한 것 • 해양안전교육의 경로와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 • 가장 일어나기 쉬운 해양안전사고 유형 • 주변 국가들의 우리 해양안보를 위협하는 정도 • 해양영토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노력 • 수산물 섭취 빈도 • 수산물 안전관련 제도 신뢰 정도 • 수산물 구입 시 가장 중시하는 요소 • 수산물 구입 장소 • 우리나라 수산물 음식에 대한 평가 • 다음 세대에게 한국의 바다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바다와 관련된 산업 중 국가 및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 • 우리나라 바다 관련 교육에서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바다와 관련된 정보·지식 획득 경로 • 바닷가에서 나는 독특한 자원 중 가장 중요한 것 • 우리나라 바닷가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 •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도시, 항구, 섬, 해수욕장, 생선 • 바다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해양문화지수의 산출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1개 지수의 전체 응답을 100점 평균 점수로 환산한 값의 평균값이며 종합 지수인 해양문화지수는 11개 하위 지수 점수의 총합이다. 11개 하위 영역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친숙지수, 지식지수, 체험만족지수, 안전지수, 안보지수, 먹거리지수, 환경지수, 경제지수, 교육지수, 정책지수, 동북아해역지수이며 측정 방법은 같다. 따라서 종합지수인 해양인식지수는 1,100점 만점으로 계산되며, 11개 하위 지수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계산되었다. 지수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한 점수이며, 경년(經年) 조사 분석을 위하여 전체 해양문화지수 산출 시에는 1,000점 만점 기준으로 다시 환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으로 전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1.2. 응답자 속성별 단순집계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남녀 각각 600명씩 총 1,200명을 조사하였고, 연령은 19세부터 60세 이상, 17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결과는 가중치를 부가하여 산출하였다. 또 특이한 점은 해역인문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바다인근 거주 경험과 바다 관련 종사에 대하여 속성구분을 하였다. 이를 간략하게 그 결과를 설명하면 표4와 같다.

[표4] 응답자 속성

구분		가중 전		가중 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1,200)	100.0	(1,200)	100.0
성별	남자	(600)	50.0	(599)	49.9
	여자	(600)	50.0	(601)	50.1
연령	19~29세	(219)	18.3	(221)	18.4
	30대	(216)	18.0	(220)	18.3
	40대	(238)	19.8	(239)	19.9
	50대	(244)	20.3	(243)	20.2
	60세 이상	(283)	23.6	(277)	23.1
권역	서울/경기	(260)	21.7	(529)	44.1
	인천	(75)	6.3	(68)	5.7

동북아 해역인문학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인식조사 연구

구분		가중 전		가중 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부산	(80)	6.7	(79)	6.6
	충청	(224)	18.7	(131)	10.9
	전라	(183)	15.3	(119)	9.9
	경상	(273)	22.8	(224)	18.7
	강원	(59)	4.9	(35)	2.9
	제주	(46)	3.8	(15)	1.3
바다 관련 종사 여부, 흥미 여부	바다 관련 종사자	(67)	5.6	(58)	4.9
	비종사자/흥미 있음	(643)	53.6	(687)	57.2
	비종사자/흥미 없음	(489)	40.8	(454)	37.9
	무응답	(1)	0.1	(1)	0.0
바다 인근 지역 거주 경험	없음	(694)	57.8	(778)	64.9
	과거 바다 인근 거주	(148)	12.3	(141)	11.8
	현재 바다 인근 거주	(358)	29.8	(281)	23.4
거주지역	서울	(123)	10.3	(225)	18.8
	부산	(80)	6.7	(79)	6.6
	대구	(70)	5.8	(57)	4.7
	인천	(75)	6.3	(68)	5.7
	광주	(58)	4.8	(35)	2.9
	대전	(59)	4.9	(35)	2.9
	울산	(54)	4.5	(27)	2.2
	세종	(40)	3.3	(7)	0.6
	경기	(137)	11.4	(304)	25.3
	강원	(59)	4.9	(35)	2.9
	충북	(60)	5.0	(38)	3.2
	충남	(65)	5.4	(51)	4.2
	전북	(62)	5.2	(42)	3.5
	전남	(63)	5.3	(42)	3.5
	경북	(71)	5.9	(62)	5.2
	경남	(78)	6.5	(78)	6.5
제주	(46)	3.8	(15)	1.3	

부경해양지수 즉 해양문화지수는 한국인의 바다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다. 이를 통하여 해양문화의 종합지수는 585.3점(1,000점 기준)으로 나타났다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친숙지수(64.1점), 체험만족지수(63.6점)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안전지수(47.4점), 교육지수(46.1점)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지수별 점수를 각각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한 후 전체 총점 1,000점 기준으로 환산한 것으로, 각 지수별 점수는 차이가 있다.

2. 결과 및 분석

2.1. 해양문화지수의 전체적 경향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2019년 해양문화지수는 585.3점이다.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1개 하위 지수 항목을 환산하여 만든 값이다. 1100점이 아니라 1,000점으로 환산한 이유는 시계열 비교분석을 위함이다. 예를 들어 지수 항목이 줄거나 늘어도 1,000점을 만점으로 계산한다면 해마다 조사되는 분석 결과가 균질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9년 해양문화지수가 585.3점으로 586.5점에 비해 살짝 낮아졌지만 크게 변동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한국인의 바다와 해역에 관한 인식인 해양문화지수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친숙지수’가 64.1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지수’가 46.1점으로 제일 낮았다. 그리고 2019년 부경해양지수에 처음으로 포함시킨 ‘동북아해역지수’는 51.1점으로 평균에 살짝 미치지 못하였다. 그 외 ‘체험만족지수’ 63.6점, ‘안보지수’ 54.6점, ‘정책지수’ 53.1점, ‘지식지수’ 51.8점, ‘환경지수’ 51.7점, ‘먹거리지수’ 51.4점, ‘경제지수’ 50.6점, ‘안전지수’ 47.4점 순이었다.

지수 항목 이외에 바다와 해역과 관련된 일반 항목 중에서 대표되는 것을 찾는 문항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을 대표하는 항구는 ‘부산항’, 대표하는 섬은 ‘제주도’, 해수욕장은 ‘해운대’, 대표 생선은 ‘고등어’, 한국의 바다 하면 떠오르는 곳은 ‘동해’, 바다 하면 떠오르는 영화는 ‘해운대’, tv프로그램은 ‘도시어부’, 소설은 ‘노인과 바다’, 노래는 ‘여수 밤바다’, 바다를 대표하는 인물은 ‘이순신’, 음식은 ‘생선회’, 좋아하는 바다는 ‘동해’, 좋아하는 해양 생물은 ‘고래’ 등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는 지역별, 성별 기타 속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반 항목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바다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향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2. 2. 사회언어학적 인식 분석

동북아해역지수가 본 논문에서 주로 다룰 내용이다. 일단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카테고리 별로 구분해 보면 크게 지민사(知民史)라는 분류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설명하는 ‘지’는 지식교류를 바탕으로 하며, ‘민’은 민간교류를 의미하고 ‘사’는 역사적 교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동북아해역지수를 구성하는 ‘지민사’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지식교류에서는 교육, 출판, 번역어이며, 민간교류에서는 도시, 교류, 대중문화, 해역기층문화, 이민과 식민, 디아스포라, 해양 산업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교류에서는 교통망, 항로, 식민도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선정에 있어서는 동북아해역 관련 아젠다 내용에서 35개 예비 항목을 선정한 후에 최종 14항목을 선택하였다.

<지식교류: 지식의 이동, 지식인의 이문화 교류, 출판 등과 같은 지식교류와 관련된 분야>

교육-일제강점기 조선에 들어온 일본의 교육제도가 한국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교육-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교육시스템이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
출판-한국 이외 중국이나 일본의 서적을 읽어본 적이 있다.
번역어-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한자를 공용 문자로 정할 필요가 있다.

<민간교류: 이주와 정주 그리고 해역기층문화와 관련된 분야>

도시-우리나라 항구도시가 중국이나 일본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는 것 같다.
교류-개항 이후 유학생들의 해외활동은 한국의 근대화에 영향을 미쳤다.
대중문화-해양 문화, 해양 인문학과 같은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
해역기층문화-어촌 지역 말은 일반 지역 말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민과 식민-나는 외국에 갈 때 비행기 노선이 있어도 배가 운항한다면 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디아스포라-나는 중국과 일본에 사는 재외동포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다.
해양산업-동북아해역을 원산지로 하는 한국산 수산물과 중국, 일본의 수산물은 차이가 있다.

<역사교류: 해역교류사 및 동북아 지역의 질서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 탐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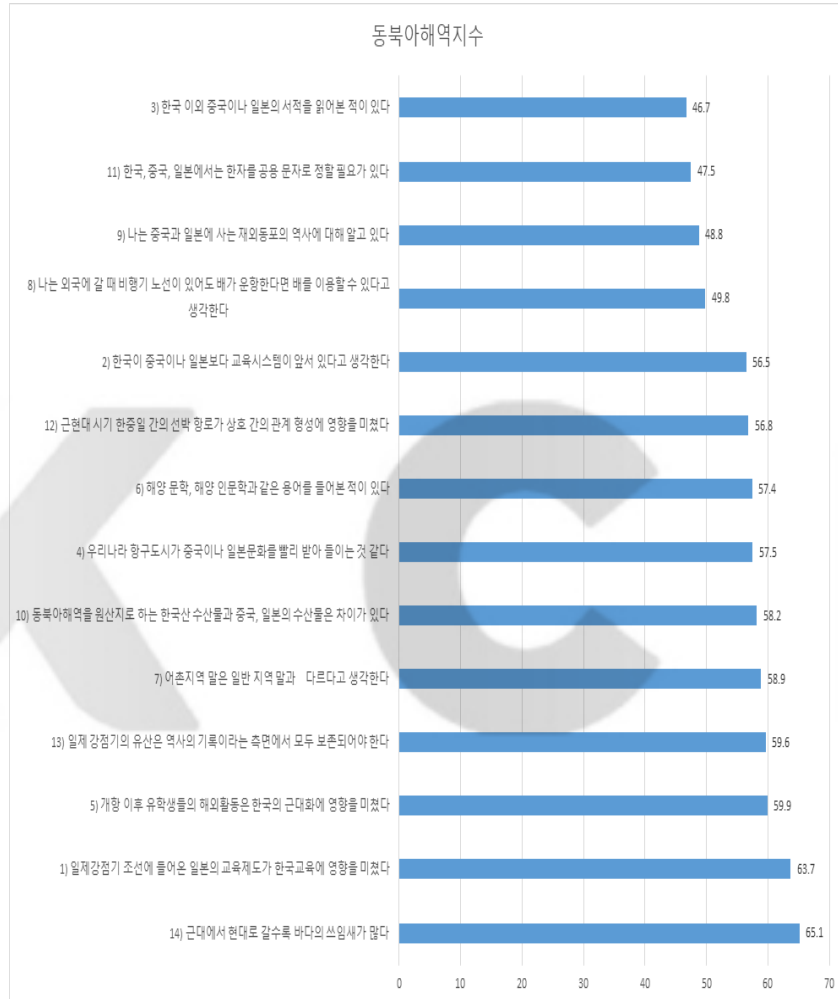
항로-근현대 시기 한중일 간의 선박 항로가 상호 간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식민도시-일제 강점기의 유산은 역사의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보존되어야 한다.
해역-근대에서 현대로 갈수록 바다의 쓰임새가 많다.

이와 같이 동북아해역지수 문항과 키워드 간의 대응과 그림[1]과 같이 점수화된 그래프를 바탕으로 설명하겠다. 이 가운데 특징적인 부분은 한국과 인접한 중국, 일본과의 해양 역사, 관계 등에 대한 인식 정도를 나타내는 동북아해역지수는 51.1%이었다. 그리고 지식 부분에 해당되는 ‘일제 강점기에 들어온 일본 교육제도가 한국 교육에 영향을 미쳤다’(63.7%), 민간 분야에 해당하는 ‘개항 이후 유학생들의 해외 활동은 근대화에 영향을 미쳤다’(59.9%)라는 의견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역사 분야에 해당하는 ‘근대에서 현대에서 갈수록 바다의 쓰임새가 많다’(65.1%)라는 의견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언어학적 속성별로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동북아해역지수에 대한 설명을 해보면 이 지수항목 가운데 높은 점수를 차지한 것은 ‘근대에서 현대로 갈수록 바다의 쓰임새가 많다’가 65.1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해양산업과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다음으로 ‘일제 강점기 조선에 들어온 일본의 교육제도가 한국교육에 영향을 미쳤다’가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다. 상대적으로 사회전반에 남아 있는 일본의 잔재가 한국의 교육제도(초등학교 등의 교육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차지한 것은 ‘개항이후 유학생들은 한국의 근대화에 영향을 미쳤다’가 약 59.9점으로 100점 만점에서 약 60점 정도에 해당하며, 선진문물을 접한 유학생들이 한 사회에 새로운 지식전파를 창출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식 교류와 전파 수용의 메커니즘을 살펴볼 때 이러한 국민의 인식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동북아 해역인문학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인식조사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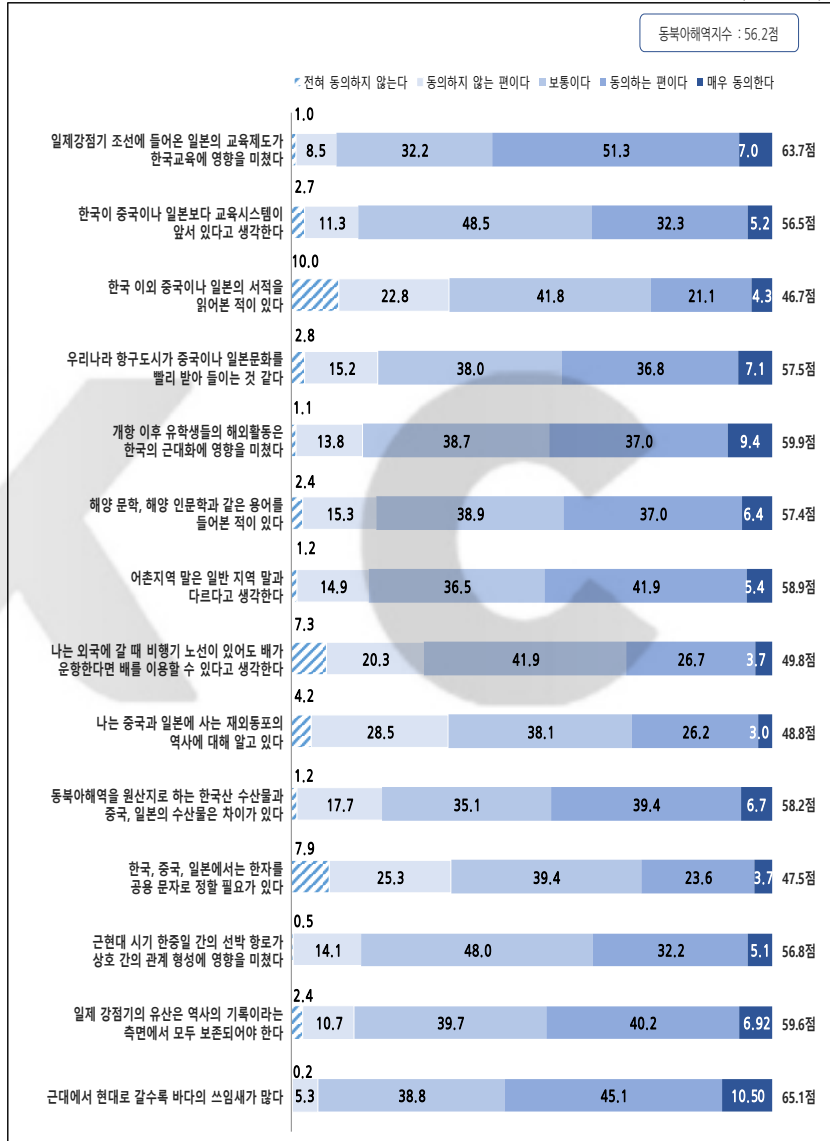
[그림1] 동북아해역지수 14문항(점수)



위와 같이 설명한 그래프를 항목별로 나타낸 것이 다음 그래프이다. 이는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동의한다’와 ‘동의하지 않는다’로 단순 명료하게 함산하여 살펴보겠다.

[그림2] 동북아해역지수(세부 내용)

(단위: 점)



이와 같이 양분한 것은 항목에 대한 해석이 쉽기 때문이며, 순서를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대답과 부정적인 대답의 차이로 표[5]와 같이 재배열하였다.

[표5] 동북아해역지수(긍정과 부정으로 합산)

no	문항	점수	O	X	격차
14	근대에서 현대로 갈수록 바다의 쓰임새가 많다	65.1	55.6	5.6	50.0
1	일제강점기 조선에 들어온 일본의 교육제도가 한국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63.7	58.3	9.5	48.8
5	개항 이후 유학생들의 해외활동은 한국의 근대화에 영향을 미쳤다	59.9	46.4	14.9	31.5
13	일제 강점기의 유산은 역사의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보존되어야 한다	59.6	47.1	13.2	33.9
7	어촌지역 말은 일반 지역 말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58.9	47.3	16.1	31.2
10	동북아해역을 원산지로 하는 한국산 수산물과 중국, 일본의 수산물은 차이가 있다	58.2	46	18.9	27.1
4	우리나라 항구도시가 중국이나 일본문화를 빨리 받아들이는 것 같다	57.5	43.9	18.1	25.8
6	해양 문화, 해양 인문학과 같은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	57.4	43.4	47.3	-3.9
12	근현대 시기 한중일 간의 선박 항로가 상호 간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56.8	37.4	14.6	22.8
2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교육시스템이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	56.5	37.5	14	23.5
8	나는 외국에 갈 때 비행기 노선이 있어도 배가 운항한다면 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9.8	30.4	27.6	2.8
9	나는 중국과 일본에 사는 재외동포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다	48.8	29.2	32.7	-3.5
11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한자를 공용 문자로 정할 필요가 있다	47.5	27.4	33.2	-5.8
3	한국 이외 중국이나 일본의 서적을 읽어본 적이 있다	46.7	25.4	32.8	-7.4

우선 ‘근대에서 현대로 갈수록 바다의 쓰임새가 많아졌다’고 느낀 사람들은 전체 55.6%로 쓰임새가 없다고 대답한 5.6%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국민들

의 인식이 바다의 유용성에 매우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에 들어온 일본의 교육제도가 한국교육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질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사람이 58.3%이고 반면에 미치지 않았다고 대답한 비율은 9.5%로 이 또한 48.8%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 그 당시 일본의 교육제도가 한국의 교육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하는 데에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견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개항 이후 유학생들의 해외활동은 한국의 근대화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은 46.4%와 그렇지 않다는 14.9%로 나타났다. 결국 유길준이나 서재필 등과 같은 유학파들의 활동이 한국의 근대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하는 국민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의 유산은 역사의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보존되어야 한다’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47.1% 보존되지 않아도 된다는 13.2%로 아픔의 역사지만 전부 소멸시켜는 역사가 아닌 어두운 마이너스의 유산이지만 이를 보존하고자 하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어촌지역 말은 일반 지역 말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47.3%이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 비율은 16.1%로 기본적으로는 다르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사회언어학적 속성별로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다.

그리고 ‘동북아해역을 원산지로서 하는 한국산 수산물과 중국, 일본의 수산물은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국민은 46.0%이고,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국민은 18.9%이다. 상대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질문들에 비해 갈수록 격차가 줄어든다. 다만 아직까지 한국의 수산물과 동북아지역 수산물과의 차이를 구분하려하고 있다고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항구도시가 중국이나 일본문화를 빨리 받아들이는 것 같다’라는 물음에는 43.9%가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18.1%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이 질문은 바다의 개방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대부분의 해양도시가 갖는 교류와 교역으로 인한 다양한 접촉 등을 가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문항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역전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

다. 우선 ‘해양 문학, 해양인문학과 같은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43.4%이고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한 사람은 47.3%로 안 들어 본 사람이 조금 많았다. 다만 해양인문학에 대한 저변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근현대 시기 한중일 간의 선박 항로가 상호 간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37.4%이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은 14.6%이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3분의 1 정도는 선박 항로가 동북아지역의 교류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14.6%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는 비율도 의외로 높았다. 아무래도 선박의 항로와 하늘 길을 동시에 생각한다면 바다의 한 가지 항로만을 염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교육시스템이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37.5%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14.0%였다. 이는 앞서 설명한 ‘일제강점기 조선에 들어온 일본의 교육제도가 한국교육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항목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앞에서는 마이너스(負)의 기억이지만 교육시스템 입장에서는 근대와 현대가 중첩되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외국에 갈 때 비행기 노선이 있어도 배가 운항한다면 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30.4%는 그렇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는 27.6%를 차지하였다. 배를 이용할 수 있다와 이용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거의 없어 두 이동수단 간에는 팽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나는 중국과 일본에 사는 재외동포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 29.2%, 모른다가 32.7%로 처음으로 이 항목에서부터 긍정과 부정이 역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외동포의 역사, 즉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우리 국민의 기억 속에 그리 깊이 자리매김 되어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이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긍정과 부정이 역전된 질문에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한자를 공용 문자로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27.4%, 필요하지 않

다고 답한 비율이 33.2%이다. 이와 같은 수치는 기본적으로 한자가 공용문자로 지정되는 것 자체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 장에서도 또 한 번 언어와 관련된 항목이므로 사회언어학적 속성별로 분류하여 분석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국 이외 중국이나 일본의 서적을 읽어본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읽어본 적이 있다는 25.4%와 읽어본 적이 없다는 32.8%로 가장 많은 격차를 보였고 이를 해석해보자면 동북아의 지식교류 전파 양상은 적어도 현대에 와서는 매우 소수만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근대 동아시아의 지식교류 메커니즘에 빗대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에는 번역에 의한 지식전파의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원서를 통한 지식전달이라는 의미에서 체험자가 소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동북아해역지수 14문항을 각각 분석해보았고 이를 언어와 관련된 항목만을 추출하여 사회언어학적 속성별로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다.

2.3. 사회언어학적 속성별로 보는 동북아해역지수

이와 같은 동북아해역지수를 해역언어문화와 관련된 2문항(7) ‘어촌지역 말은 일반 지역 말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한자를 공용문자로 정할 필요가 있다’에 한정하여 살펴보겠다. 사회언어학적 요인인 성별, 연령, 지역 그리고 바다관련 종사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어촌지역 말은 일반 지역 말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 평균값은 58.5점이며, 남자가 59.7점이고 여자가 58.0점으로 남자가 어촌지역에서 사용하는 말과 실제로 다르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60.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20대 청년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60세 이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아 해역인문학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인식조사 연구

표[6] 동북아해역지수

구분	사례수	1) 일제강점기 조선에 들어온 일본의 교육제도가 한국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2)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교육시스템이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	3) 한국 이외 중국이나 일본의 서적을 읽어본 적이 있다	4) 우리나라 항구도시가 중국이나 일본문화를 빨리 받아들이는 것 같다	5) 개항 이후 유학생들의 해외활동은 한국의 근대화에 영향을 미쳤다	6) 해양 문학과 같은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	7) 어촌지역 말은 일반 지역 말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전체	(1,200)	63.7	56.5	46.7	57.5	59.9	57.4	58.9	
성별	남자	(599)	64.9	57.5	46.9	58.5	60.3	58.2	59.7
	여자	(601)	62.5	55.5	46.6	56.6	59.6	56.7	58.0
연령	19~29세	(221)	65.4	55.8	48.2	59.2	60.1	57.1	60.2
	30대	(220)	63.0	56.4	47.5	55.6	59.6	57.3	58.4
	40대	(239)	64.9	56.6	45.8	60.6	61.1	58.9	58.6
	50대	(243)	63.6	56.8	47.2	56.3	58.7	58.9	60.3
	60세 이상	(277)	61.9	56.8	45.4	56.3	60.3	55.2	57.1
권역	서울/경기	(529)	61.2	55.0	43.7	54.9	56.2	56.2	57.5
	인천	(68)	58.0	50.0	38.3	51.7	54.3	48.7	52.3
	부산	(79)	75.6	69.1	65.0	65.0	69.1	75.3	66.6
	충청	(131)	62.7	61.4	47.7	63.1	65.4	58.2	58.1
	전라	(119)	69.2	64.8	53.0	65.8	67.0	62.3	65.8
	경상	(224)	64.2	52.4	49.6	56.7	59.2	54.6	57.7
	강원	(35)	69.5	44.1	30.9	52.1	64.8	55.5	63.6
	제주	(15)	58.2	55.4	30.4	49.5	64.7	48.9	56.0
바다 관련 종사 여부, 흥미 여부	바다 관련 종사자	(58)	70.4	62.2	57.7	65.2	70.7	68.2	65.0
	비종사자 / 흥미 있음	(687)	64.0	55.9	45.7	57.6	58.9	57.0	58.0
	비종사자 / 흥미 없음	(454)	62.4	56.8	46.9	56.5	60.1	56.8	59.4
	무응답	(1)	75.0	25.0	50.0	75.0	75.0	50.0	75.0
바다 인근 지역 거주 경험	없음	(778)	62.3	56.3	45.4	57.1	58.1	56.5	58.6
	과거 바다 인근 거주	(141)	64.5	56.5	45.8	57.5	60.2	52.6	54.6
	현재 바다 인근 거주	(281)	67.0	57.0	51.0	58.8	64.8	62.3	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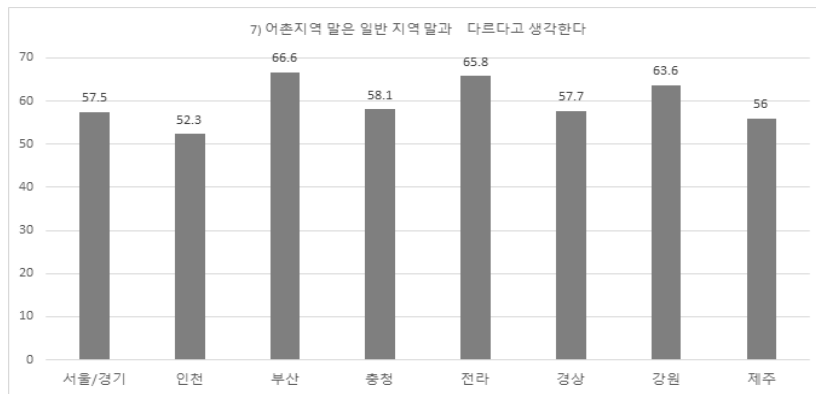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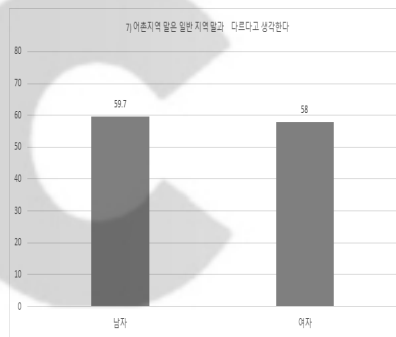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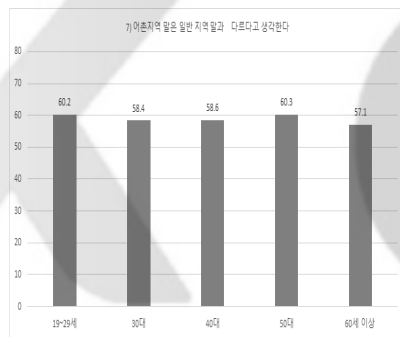
동북아해역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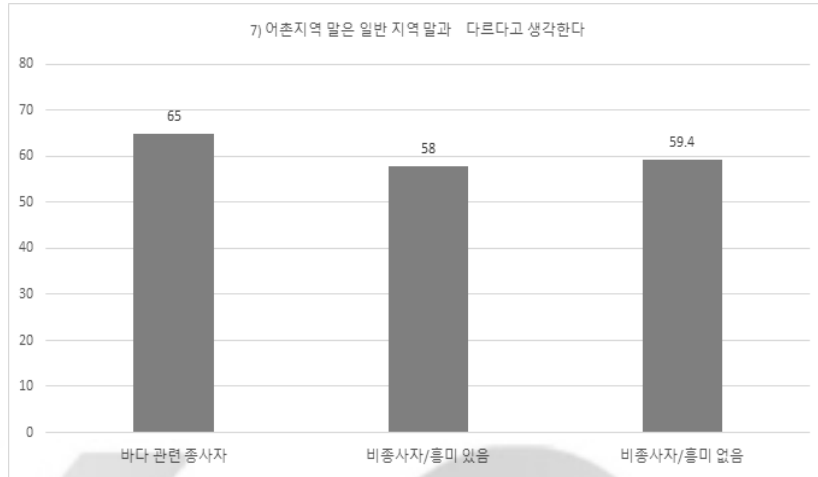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8) 나는 외국에 갈 때 비행기 노선이 있어도 배가 온항한다면 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9) 나는 중국과 일본에 사는 제외동포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다.	10) 동북아 해역을 원산지로 하는 한국산 수산물과 중국, 일본의 수산물은 차이가 있다.	11) 한국, 중국, 일본에 사는 한자를 공용 문자로 정할 필요가 있다.	12) 근현대 시기 한중일 간의 선박 항로가 상호간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13) 일제 강점기의 유산은 역사기록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보존되어야 한다.	14) 근대에 서한과 같은 수륙 바다의 쓰임새가 많다.	
전체	(1,200)	49.8	48.8	58.2	47.5	56.8	59.6	65.1	
성별	남자	(599)	50.8	50.4	59.4	47.2	57.3	60.4	65.7
	여자	(601)	48.8	47.3	56.9	47.9	56.4	58.8	64.5
연령	19~29세	(221)	48.6	47.3	56.6	45.4	57.9	58.9	63.9
	30대	(220)	50.3	47.6	59.9	48.1	55.3	59.4	66.1
	40대	(239)	51.1	47.8	59.1	47.4	56.9	60.5	65.2
	50대	(243)	51.0	50.6	57.1	47.4	58.7	60.5	66.4
	60세 이상	(277)	48.1	50.3	58.1	48.9	55.5	58.9	63.9
권역	서울/경기	(529)	49.0	47.8	52.7	48.4	52.9	58.4	60.0
	인천	(68)	35.3	33.3	65.3	38.0	54.3	64.3	64.0
	부산	(79)	58.8	63.1	67.8	60.6	69.4	74.1	78.4
	충청	(131)	52.0	52.1	61.8	47.1	62.0	58.2	68.1
	전라	(119)	62.9	58.9	63.4	57.2	60.9	62.6	69.5
	경상	(224)	46.9	46.0	58.7	42.0	56.8	56.6	67.4
	강원	(35)	42.4	39.8	66.5	30.5	59.7	52.1	72.9
	제주	(15)	33.7	34.8	66.3	37.5	56.0	55.4	66.3
바다 관련 종사 여부, 흥미 여부	바다 관련 종사자	(58)	52.4	53.9	62.0	54.4	68.0	69.0	76.3
	비종사자/흥미 있음	(687)	48.4	47.6	57.2	46.3	56.4	59.4	64.5
	비종사자/흥미 없음	(454)	51.6	50.0	59.1	48.6	56.0	58.8	64.6
	무응답	(1)	25.0	50.0	75.0	50.0	75.0	50.0	50.0
바다 인근 지역 거주 경험	없음	(778)	50.6	48.9	56.6	47.5	55.5	58.8	62.8
	과거 바다 인근 거주	(141)	43.2	44.1	61.1	44.7	56.1	61.1	64.9
	현재 바다 인근 거주	(281)	50.9	51.1	61.0	49.0	61.0	61.2	71.4

다음으로 속성 중에서 지역별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가장 높은 곳은 부산지역으로 66.6점으로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인천이 가장 낮았으며, 제주, 서울과 경기 순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바다와 인접한 부산과 인천이지만 어촌지역 말과 일반 지역 말과 다르다는 의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 말 즉 방언 의식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어촌관련 말이라고 생각해서 다르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지역어라서 다르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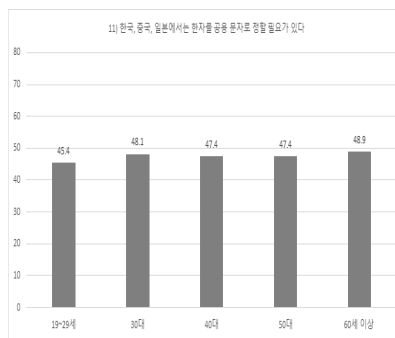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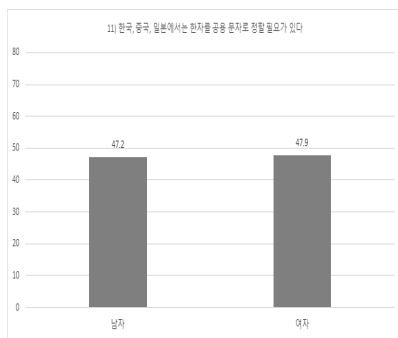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어촌지역 말은 일반지역 말과 다르다는 질문에 대하여 바다와 관련된 업종 종사자와 비종사자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평균값이 58.5점이었지만 바다와 관련된 업종관계자는 바다관련 전문용어의 사용에 있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비율은 다른 사회언어학적 조사에서도 밝혀진대로 여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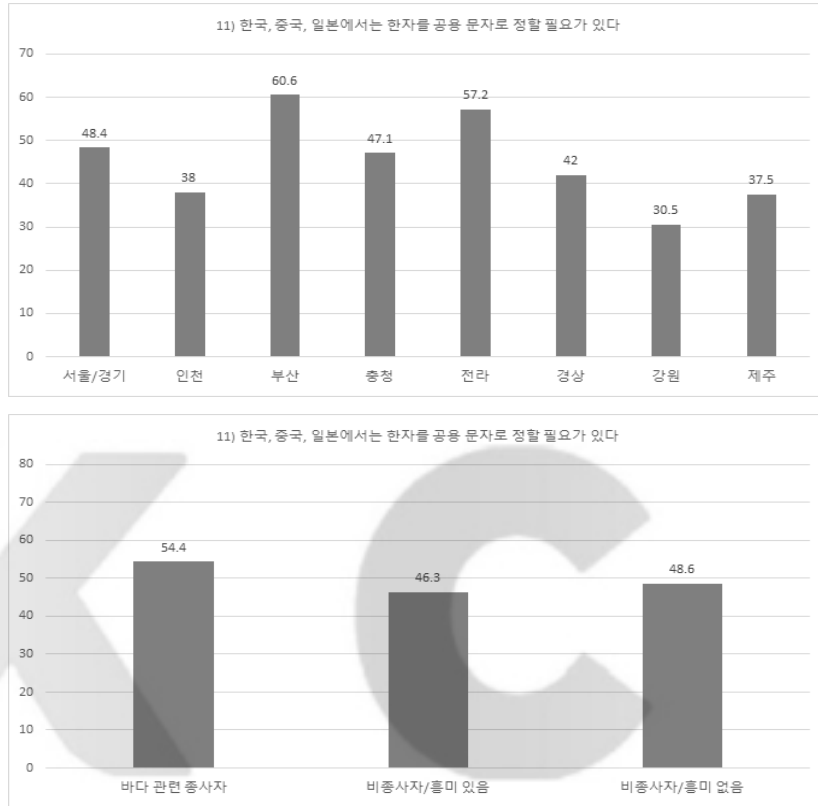


[그림3] 어촌관련 말에 대한 인식(속성별)

다음으로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한자를 공용문자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질문의 평균값은 47.5점이다. 한자의 공용문자 지정은 50점을 넘지 못하고 있어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를 사회언어학적 속성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성별로 구분해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한자를 공용문자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약간 높았지만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아 해역인문학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인식조사 연구



[그림4] 한자의 공용 문자화(속성별)

어촌관련 말에 대한 의식세대별 특징으로 보면 평균보다 높은 세대는 30대와 60대 이상이다.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학창시절 한자를 학습한 유경험자들이 대부분이며 한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볼 수 있으며, 30대의 경우 사회적 활약층으로 실생활 속에서 중요성을 인지한 세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별로 한자 공용문자 지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장 높은 지역은 60.6점으로 부산이며 다음으로는 전라 57.2점이다.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 30.5점 그리고 제주 37.5점, 인천이 38점으로 평균값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중국과 가까운 지역인 인천이

평균보다 낮았다는 점에서 의외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지역적으로 한자를 공용문자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적 편차가 매우 심하여 어떠한 공통점을 도출해 내기에는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바다 관련 종사자와 비종사자 간의 결과를 살펴보면 바다관련 종사자가 한자를 공용문자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이는 개방적 문화를 많이 접하면서 스스로 인식하게 되어 있음을 나타낸 결과가 아닐까 판단된다.

IV. 나오며

해양문화지수 조사는 전술한 것처럼 2017년에 부경대학교 대학인문역량강화(CORE) 사업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며, 2019년을 포함하여 총 3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다만 이전에 실시했던 조사 그룹이 더 이상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 중단되었던 이 조사는 해역인문학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지속해야 하는 연구내용이라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에서는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2019년 9월과 10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pm 3.10\%p$ 이다. 이조사의 의의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결론을 가름하고자 한다.

<의의 및 시사점>

개인연구로는 할 수 없는 대규모 랜덤샘플링 조사를 실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해양문화지수로의 성장 가능성
사회언어학적 속성에 의한 동북아해역지수를 분류함으로써 국민들의 해양인식에
대한 척도

본 논문에서는 해역인문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장르에 맞추어 해양문화지수 항목을 조정 개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해역인문학의 토대를 마련하고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특히 전국단위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한국인의 ‘해역’

인식과 해역이 지니는 인문학적 의미를 지역과 세대, 개개인의 경험에 따른 해역에 대한 시선과 사고를 파악하였고 이를 향후 해역인문학, 해역 문화사업, 해역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기존의 인문학 연구처럼 역사적 문헌 연구와 현장 조사를 통한 실태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4차 산업 시대가 도래한 지금, 이 조사는 국민들의 바다 인식, 우리는 바다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길라잡이가 되리라 생각한다.

이미 해양수산부와 각종 해양관련 정부출연 연구소 등에서도 바다와 해양에 대한 실태조사는 많이 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조사에는 인문학이라는 접근이 빠져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해양문화지수 조사와는 명백히 다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조사 결과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다, 해역을 인문학적 시점에서 조사하였고, 이에 맞추어 해역인문학적 항목을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조사 데이터가 방대하여 자료의 일부만을 분석하는데 그쳤다. 향후 면밀한 조사 분석을 통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지수를 발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연구논문

- 박종천·이재수, 「지속 가능한 한류를 위한 문화 콘텐츠 전략」, 『국학연구』 36, 2018, pp.549-588.
- 배준기·이은방, 「사고 통계기반 선박사고 예방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8권 제3호, 2014, pp.247-252.
- 배태영, 「상대적 문화지수 측정을 통한 지역 문화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3호, 2018, pp.217-239,.
- 현민·예동근·이춘수, 「해양문화지수를 통한 해양실태조사와 한류 시너지에 관한 소고」, 『무역통상학회지』 19(1), 2019, pp.47-68.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1권 제1호 (2020. 02. 29)

기타자료

예동근·이춘수·서영식, 「해양 문화와 한류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통상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자료, 20018.

보고서

CORE사업단, 『2017 부경해양지수 한국인에게 바다란 무엇인가』, 부경대학교, 2018.

CORE사업단, 『2018 부경해양지수 한국인에게 바다란 무엇인가』, 부경대학교, 2019.

HK+사업단, 『부경해양지수 동북아해역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부경대학교, 2019.

<Abstract>

A sociolinguistic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humanities in northeast asian sea region
- Focus on 'Maritime Cultural index'-

Yang Minho·Choi Minkyung

This study is not an approach from the traditional historical and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We tried to use the frame 'Maritime Cultural Index' to study the sea regions. This year is the third survey of the 'PKNU maritime index.' the Humanities Korea Plus (HK+) research group supplemented and developed the 'Maritime Cultural Index' items. As a result, 'Maritime Cultural Index' score for 2019 was 585.3. We looked at each sub-category of the 'Maritime cultural index', Koreans' perception of the ocean or sea region. the "Friendly Index" was the highest at 64.1 points, while the "Education Index" was the lowest at 46.1. and for the first time in this survey, the 'Northeast Asian Sea Region Exchange Index' was 51.1 points, slightly below the average. through this research,

Meanwhile, the 'Northeast Asian Sea Region Index', which was included for the first time in the 2019 survey, was 51.1 points, slightly below the average. The results of an analysis of this Northeast Asian Sea Region Index classified into sociolinguistic attributes are as follows.

Different results could be obtained depending on gender, age, region, and sea-related occupation. Through this survey, it was not just a study of historical literature and actual conditions through field research, as was the case with the existing study of humanities.

With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era, this survey will be a guide to people's awareness of the sea, how we study the sea.

Keywords: Northeast Asia sea region, Humanities, Consciousness, Sociolinguistics, Survey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1권 제1호 (2020. 02. 29)

논문접수일 : 2020년 01월 05일
심사(수정)일 : 2020년 02월 04일
게재확정일 : 2020년 02월 22일

K C I